# 장롱 속 악기 꺼낸 시민 150명…감동의 선율 전한다

'ACC 시민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정기연주회

장롱 속에 잠들어 있던 악기를 꺼내 다시 연주를 시작한 시민 연주자 150명이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저마다 다른 일상을 살아온 이들이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만나 완성한 하나의 선율은 깊어가는 가을날 새로운 감동을 전한다.

## 7-8일 예술극장…생활 속 문화 가치 나눠

## 클래식부터 가곡까지…지역 합창단 협연


ACC 시민오케스트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오는 7-8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2026 ACC 시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ACC 시민오케스트라는 음악을 사랑하는 전남광주특별시민들이 연주자의 꿈을 실현하는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2016년 '장롱 속 악기를 꺼내 드립니다' 프로젝트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았다.

이번 연주회는 지난 10년간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음악적 성장을 돌아보고, 생활 속 문화예술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대에는 공병우 예술감독과 김병무 지휘자, 전문 지도강사들의 지도 아래 연습을 이어온 시민단원 150명이 오른다.

서로 다른 나이와 배경을 지닌 단원들이 하나의 오케스트라로 호흡을 맞추며 그동안 갈고닦은 연주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클래식의 웅장한 선율부터 친숙한 가곡과 합창곡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1부는 프랑스 작곡가 마르크앙투안 샤르팡티에의 '테 데움' 전주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 베토벤의 대표작인 '교향곡 제5번 다단조, Op. 67 운명'을 연주한다. 강렬한 도입부와 극적인 전개로 널리 알려진 작품을 통해 시민단원들이 만들어 내는 역동적인 하모니를 전한다.

2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지연준이 협연자로 나서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제2번 바장조, Op. 50'을 통해 서정적인 선율을 들려준다.

지역 합창단과 함께하는 합동무대도 마련된다. 광주특별시 동구합창단과 서구여성합창단, 광주여협합창단, 아미쿠스 남성중창단이 참여해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춘다. '섬집아기', '남촌', '마이 웨이(My Way)', '돌아오라 소렌토로', '내 나라 내 겨레' 등 세대를 아우르는 친숙한 명곡들이 무대를 채운다.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ACC 시민오케스트라는 시민들이 음악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해 온 소중한 결실"이라며 "창단 10주년을 맞아 단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이번 무대가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지역 생활예술이 한층 꽃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은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무료다. 예매와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복기자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이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모색

## 13일 국회의원회관서 창사30주년 기념 토론회

광주가톨릭평화방송(cpbc)은 창사 30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과 이주민센터 친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사회통합형 이주민 정책의 이정표를 세우다'를 주제로 열린다.

이날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데니즌십(Denizenship)과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선다.

이어 유상혁 신부,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 권영실·이진혜 변호사, 심아정·정영섭 활동가, 김병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등이 체류 제도 개편과 인권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민청 설립 방향 등을 논의한다.

최기원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전환과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이끄는 사회 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오복기자

# 밥상에 담긴 기억과 인연

## ACC '식객: 맛의 뒤편' 연계 전시 개최

## 8일까지 '스튜디오 연재'서 공예 체험 등

음식에 담긴 기억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는 특별한 체험형 전시가 마련된다.

전남광주 동구 동명동 '스튜디오 연재'는 오는 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특별전 '식객: 맛의 뒤편'과 연계한 스핀오프 전시 '함께 차리는 밥상'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밥에 담긴 기억과 그 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그릇을 매개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리다.

프로그램은 '한 장의 기록', '나만의 그릇 커스텀', '함께 나누는 밥상', '공예·식물 마켓' 등으로 구성됐다.

'나만의 그릇 커스텀'은 초벌 그릇에 물감과 색연필 등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체험(사진)으로, 6일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5천원으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이와 함께 7-8일 오후 5시에는 실제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에 얽힌 기억과 이야기를 나누는 '함께 나누는 밥상'이 열린다. 하루 10명씩 총 2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두 개의 체험 프로그램은 모두 '식객' 관람을 인증하면 각각 5천원, 1만원에 참여 가능하다.

같은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공예·식물 마켓'도 운영된다. /오복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 "서합 형, 이용옥(噬嗑 亨, 利用獄)"

〈제78강〉 21 화뢰서합(火雷噬嗑) 上

역경의 스물 한번 째 괘는 화뢰서합(火雷噬嗑)이다. '서(噬)'는 깨물, 씹을 서, '합(嗑)'은 다물, 삼킬 합이다. 상효는 위턱이고 초효는 아래턱이다. 사효는 이물질(異物質)로, 입 안에 이물질이 끼어 있어 깨물고 씹는데 방해 작용을 한다.

이것을 제거하면 방해물이 없어지니까 씹는 것이 원활하다. 사효가 음이 되면 산뢰이(山雷頤)로 역시 씹는 것이고 이괘(頤卦)는 부양하는 괘이다.


| 화뢰서합(火雷噬嗑) | 噬嗑 亨, 利用獄 | 卦 象 |
|---|---|---|
| | 何校 滅耳, 凶 | 日中爲市之課 |
| | 噬乾肉 得黃金, 貞厲 无咎 | |
| | 噬乾胏 得金矢, 利艱貞 吉 | 頤中有物之象 |
| | 噬膚肉 遇毒, 小吝 无咎 | 木者入火之象 |
| | 噬臘 滅鼻, 无咎 | |
| | 屨校 滅趾, 无咎 | 夫婦怒閨之意 |
| 이중유물(頤中有物), 뇌전서합 선왕이명벌칙법(雷電噬嗑 先王以明罰勅法) | | |

서합괘는 형벌과 가까운 괘이고 직업으로 본다면 **먹는 것, 형벌, 법 계통으로 형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 경찰 계통이 맞고 음식업** 등도 좋다.

서합에서 서는 '씹고 깨문다'는 의미로 힘있게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여 씹는 것으로, 내괘 아래 턱의 진(震)의 분동(奮動) 작용이다. 서합의 합은 '다물고 덮는다'는 뜻으로 뚜껑처럼 용기에 맞춰 붙이는 상괘 위턱의 이화(離火)의 부려(附麗)의 수동적인 작용이다. 이러한 내외괘의 의미를 함께 보면 씹어서 합한다는 의미이다.

**턱 안에 이물질이 끼어 있어 씹어서 분쇄하고 위 아래턱이 힘을 합해 씹고 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턱 안에 끼어 있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이물질을 씹고 깨물어 즉, 서합해서 형통한 것이다. 그래서 단사에서 '서합 형'이라 했다.**

그러나 씹어서 깨물어 형통한 길을 열지 않고 이(頤)중에 장애물이 있으면 천지비(天地否)의 상황으로 상하의 턱이 막혀서 통하지 못한다. 따라서 화뢰서합괘는 처음에는 천지비괘였던 것이 그 비색(否塞)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서합괘인 것이다. 즉 삼양삼음(三陽三陰)의 비괘(否卦)의 내괘에 있던 초효 일음(一陰)이 위로 올라가서 외괘의 오효 중(中)을 얻고 이명(離明)의 주가 돼 서합괘가 된 것이다. 이를 단전(彖傳)에서 '강래이유분(剛來離柔分), 유중득위상행(柔中得位上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는 이(頤) 중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형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이니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 천하를 바르게 하는 것인데 이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형벌(刑罰)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단사에서는'이용옥형(利用獄刑)'이라 말했다.

괘상을 가지고 설명하면 **하괘 진의 과단성**을 가지고 **상괘 이화의 태양처럼 밝음의 지혜**로서 형을 집행하면 어느 쪽에 기울지 않고 공정(公正)을 잘 지킬 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단전에서 '동이명 뇌전이합장 수불당위 이용옥형(動而明雷電而合章 雖不當位 利用獄亨)'이라는 말이다.

서괘전(序卦傳)에서 서합괘를 풍지관괘 다음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 '가히 관으로써 물건을 보고 난 후에 합하는 바가 있으므로 서합으로 이어 받는다(可觀而後 有所合 故 受之以噬嗑)'고 해 다소 설득력이 약하게 설명하고 있다.

잡괘전(雜卦傳)에서는 서합은 '씹는다, 먹는다'고 해 단전(彖傳)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계사전에서는 사람들이 시장(震)에서 해(離)가 떠있는 시간에 서로 자기 물건을 주고받고 교환해서 필요한 물건을 얻는 교역의 법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서합괘에서 취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서합의 상하괘가 이화(離火)의 해와 진뢰(震雷)의 시끄러운 시장, 도회지 상에서 끌어왔다고 할 수 있다.

서합괘의 상하괘 간의 관계를 보면, 상괘 이화(離火)는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하고 있고 하괘 진뢰(震雷)는 내적 쇄신을 위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상층부는 현재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하층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괘의 주인인 육오는 유약(柔弱)해 구사에게 하층부의 문제를 일임하나 구사는 육오로부터 음양친비(陰陽親比)해 신뢰받지만 구사가 유일한 음(陰)이나 유일한 양(陽)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구사는 육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해 하층부를 탄압하니 하층부는 단합해 육사를 물어뜯어 제거하기 때문에 '서합'괘라 이름한 것이다.

상하괘 간의 상을 보면, 시끄러운 도회지의 시장에 해가 중천에 떠 있으니 일중위시지과(日中爲市之課)요 턱 가운데 이물질이 끼어 있으니 이중유물지상(頤中有物之象)이며, 나무가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목자입화지상(木者入火之象)이고 부부가 서로 화를 내고 규방에 앉아 있는 부부노규지의(夫婦怒閨之意)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생각건대, 서합괘는 윗턱과 아래턱 사이에 끼어있는 이물질이나 방훼꾼을 씹음과 형벌로써 해결하는 상의 모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서합괘에서만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간단한 그림처럼 이해되는 주역의 괘상이라는 것이 인간 실존의 많은 문제와 군신 상하 등 계층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명료하게 파악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역상의 모습을 경의 언어와 논리로 풀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역의 상(象)과 경(經)의 언어를 창조한 성현들의 지혜와 통찰력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역경의 묘미(妙味)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화뢰서합괘(噬嗑卦)의 괘사(卦辭)는 '서합 형, 이용옥(噬嗑 亨, 利用獄)'이다. 즉 '물어뜯어 삼켜 제거해야 형통하고, 이를 위해 형옥(刑獄)을 사용하는 것이 이롭다'는 뜻이다.**

턱 안에 이물질 즉, 방해물(九四)이 들어 있으니 이를 씹어 삼키는 것이 이롭고 이 방해꾼을 형(刑)과 옥(獄)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롭다는 것이다.

서합괘는 비괘(否卦)에서 왔기 때문에 서합괘를 만나기 전에는 비괘의 상황으로 모든 일이 마음대로 안되고 막혀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 막힌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행동에 옮겼는데 구사의 방해꾼, 장애물을 만난 상황이다. 막혀 있던 원인이 구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열성과 노력을 다해 이 방해꾼을 씹어 삼키려 하고 있으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 방해꾼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단사에서는 법에 의한 형옥을 사용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利用獄刑)을 알려주고 있다.

서합괘가 산뢰이(山雷頤) 괘에서 왔다고 보는 관점은 이괘의 상괘 간산과 하괘 진뢰가 도진(倒震)과 정진(正震)으로 나아가 의기투합하고 있던 때에 이물질이 끼어 들어왔다고 보는 시각이다.

예컨대 원만했던 부부사이에 시어머니가 끼어 들어 질투하거나 삼각관계의 의혹이 일어나는 경우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잘잘못을 가려 법에 의해 명백하게 해결(明罰勅法)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소송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점사에서 서합괘〈상왈(象曰), 천둥과 번개가 서합이다. 선왕은 형벌을 엄격히 하고 법령을 공포한다(雷電 噬嗑 先王以明罰敕法). 서합괘는 손궁오세로 괘는 구월에 속한다(巽宮五世 卦屬九月). 납갑은 庚子, 庚寅, 庚辰, 己酉, 己未, 己巳다. 급시와 더불어 납갑에 생한 자는 공명부귀인이 된다(生及時與納甲者 功名富貴人也). 이월부터 팔월은 급시가 된다(二月八月 及時也)〉를 얻으면 사업, 거래 등에서는 하는 일에 방해가 끼어 있어 일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희망도 중간에 장애가 있어서 지금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와 예의범절을 갖추고 형옥(刑獄)으로 강인하게 밀어 붙여야 하고(刑獄), 함께 밥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라도 하면 의외로 효과가 있을 때이다.

장애의 원인을 잘 찾아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열성과 노력을 다해 접근해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계획하는 일은 지금 당장은 발전되지 않지만 처음에 어렵게 보였던 일이 후에는 통달할 기미가 있다. **그 착수의 시기는 사효의 시기이다.**

취직은 먹는 것에 쫓겨 필사(必死)의 경우라면 열심히 노력해 이뤄지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장애를 물어뜯는 의기(意氣)는 강하지만 빈곤하고 혐오가 있어 성사되기 어렵다.

혼인은 일단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 숨겨둔 이성이나 방훼꾼이 있을 수 있고 이야기는 잘 진행되지 않는다. 잉태의 점에서는 길점이나 산부(産婦)의 음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기다리는 사람은 도중에 장애가 생겨 올 수 없다. 가출인은 어딘가에 갇혀 있다거나 생각하지 못한 장애를 만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며,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분실물은 턱 안에 일양(一陽)이 갇혀 있어 좀처럼 찾아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경찰에게 발견돼 손에 돌아올 수가 있다.

병은 턱 안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상이니 입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불섭생(不攝生) 등이 원인이다. 즉, 폭음, 폭식으로 인한 위장장애, 사효의 양(陽)을 암, 종양, 인후(咽喉)의 종양, 부인의 유방암 등으로 상당히 심각한 증세이니 하루라도 빠른 절개수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희망이 있음으로 병자의 기력을 강건히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점예]에서 'TV 리포터 취직여하'를 입서해 무동(無動)의 서합괘를 얻고 점고하기를, '서합은 입 안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이중유물(頤中有物)로서 방해꾼, 장애물이 일의 진행을 막고 있는 상이니 어렵다. 또한 이용옥(利用獄)이라는 단사에서 개가 짖어 말을 못하게 방해하니 입을 막는 상(獄)이 돼 떨어질 것'으로 판단, 적중했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 토, 일 오전)
○기초 이론 부터 최고수준 까지

